

매도자 버티기?...광주 아파트값 하락폭 축소

■광주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7월	8월	올 누계
광주	-0.17	-0.13	-0.39
동구	-0.21	-0.22	-0.84
서구	-0.09	-0.02	0.31
남구	-0.26	-0.27	-0.91
북구	-0.18	-0.17	-0.75
광산구	-0.16	-0.09	-0.22



4개월 연속 하락 폭이 확대됐던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들어 낙폭이 다소 축소됐다. 현 아파트 가격의 저점 인식 확산으로 매도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데다,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5% 하락하며 전월(-0.09%)보다 낙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한 달 새 0.77% 오르며 지난 2011년 1월(0.99%) 이후 최근 8년 7개월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남(0.15%), 대구(0.03%), 경기(0.01%) 등도 상승했지만, 강원(-0.43%), 경남(-0.40%), 충북(-0.35%), 제주(-0.34%), 울산(-0.26%) 등은 하락 폭이 컸다.

8월 매매가격 0.13% 떨어져
5개월만에 낙폭 줄어들어
현재 가격 저점 인식 확산에
가을 이사철·금리인하 영향

8월 광주 주택 매매가격은 0.01% 떨어져 전월(0.05%)보다 하락 폭이 둔화됐다. 5월(-0.02%), 6월(-0.04%), 7월(-0.05%), 8월(-0.01%)까지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 1-8월 누계로는 0.31% 상승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1.67%)보다 상승 폭은 크게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떨어져 전월(-0.17%)보다 하락 폭이 다소 둔화됐다.

특히 올 4월 -0.04%, 5월 -0.12%, 6월 -0.15%, 7월 -0.17%에서 8월에는 -0.13%로 5개월만에 낙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남구가 -0.27%로 낙폭이 가장 컸으며 동구(-0.22%), 북구(-0.17%), 광산구(-0.09%), 서구(-0.02%) 등의 순이었다.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8월까지 누계로는 0.39%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2.20%)과 전국 5개 광역시 평균(-1.36%)보다 낙폭은 적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아파트값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들어 매수자들 사이에서 '현재 가격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여기에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하락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 자치구 중에서 서구는 지하

철 2호선 개통 예정과 신규 아파트 분양 열기 등에 힘입어 하락 폭이 가장 적었고, 올 들어 8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유일하게 0.31% 상승한 것도 전체적인 지역 아파트값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낙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가을 이사철 주택시장을 보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0.42% 올라 전월(0.3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누계기준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2.61%)보다 높은 3.08%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1.80%)과 5대 광역시 평균(2.59%)보다 높았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한전·전남도·나주시 '그린수소' 개발 협력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수소

한국전력(사장 김중갑)은 2일 한전 본사에서 전남도와 나주시 간 '그린수소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그린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레이(Gray)수소는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한다.

이날 MOU에서 한전은 그린수소 기술개발 및 사업추진을 주관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수소 생산에 필요한 태양광 설비 지원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린수소 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증가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문제를

를 해결해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또 이날 한국동서발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한양대 등 17개 기업·기관과도 '그린수소 기술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전은 수전해·메탄화·운송기술 개발 및 실증을 총괄하고 참여기업과 기관은 수전해 수소 생산·저장·메탄화 및 운송시스템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중갑 사장은 "한전은 전남도, 나주시,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김중갑(왼쪽)한전사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중앙), 강인규 나주시장이 2일 한전본사에서 '그린수소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전 제공

광주TP, 치매국책연구단과 업무협약 체결

치매 진단 의료 기업 육성 추진 바이오헬스·AI산업 성장 기대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성진)는 2일 광주테크노파크 중회의실에서 치매국책연구단(단장 이건호)과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사업과 노인복지 연계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치매 진단 의료기기 및 알고리즘 안전성·효율성 검증, 치매 정밀의학 DB 플랫폼 구축 및 활용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치매 진단 의료기기 기업 육성 및 상용화와 치매 진단 의료기기 기업 인력양성 및 기술 교류 협력도 진행한다.

이어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정보 교환, 각종 정부지원사업 등 신규 협력사업 발굴 추진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 민선 7기 핵심공약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 선점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노후가 걱정없는 행복한 광주'를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건호 단장은 "정부에서는 치매국책 연구단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치매 무료검진을 실시해 아시아 최대의 생체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며 "광주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많은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과 치매국책연구단이 서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진 원장은 "광주지역에 국가 치매 DB센터 유치하고, 이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의 치매예측기술 개발과 기업육성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 치매에 고통받지 않는 치매 예방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광주인자위, 청년 장병 일자리 창출 '힘 모은다'

31사단 등과 업무 협약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최중만)는 2일 육군 제31사단(사단장 소영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복지+센터(소장 이준호),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4개 기관은 구인 구직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취업컨설팅,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 장병들이 전역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유아교육 전문 '마이리틀타이거' 입점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8층 유아·아동 매장에 유아교육 전문 SPA브랜드 '마이리틀타이거' 매장을 열었다. 마이리틀타이거는 도서, 교구, 장난감 등 유아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조·유통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져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오늘 아시아나 예비입찰...누가 나설까

애경 등 공개적 참여 의사 밝혀
재정건전성·업황 우려 '미지근'
컨소시엄·분리 매각 가능성도
지역업체 참여 여부 '축각'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적 항공사 인수·합병(M&A)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예비입찰이 3일 진행될 예정이어서 어느 기업이 인수전에 참여할지 등 흥행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항공업황이 '부진의 늪'에 빠져 있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역에서는 이번 인수전에 지역업체가 뛰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호산업과 매각 주안사인 크레딧스위스 증권(CS)은 3일 아시아나항공 예비입찰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 7월 CS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매각 방식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주식 6천868만주(지분율 33.5%·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예비 입찰 이후 금호산업과 CS 등은

적격 예비인수자(숏리스트)를 선정한 뒤 재무실사를 거쳐 본입찰에 나서게 된다. CS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본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자를 결정하는 등 연내 매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격은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 뿐이다. 앞서 유력한 대기업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린 SK, 한화 등은 아직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마저 애경그룹은 단독으로 아시아나항공을 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건전성 부담이 큰 탓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7천454억원, 영업손실은 1천241억원을 기록했다. 또 상반기 부채 총액은 9조5천989억원으로 지난해 말 7조979억원

보다 2조5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전반적으로 항공업계 업황이 '빨간불'인 것도 약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애초 '통매각' 방침을 고수하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분리매각'을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장 미래에셋대우가 국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재무적 투자자(FI)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덩치가 작아 인수 부담이 적게 드는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과 같은 저가항공사(LCC)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업체가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지에도 지역민들이 축구를 군두세우고 있다. 유력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호반건설은 앞서 인수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지역 한 업계 관계자는 "호반이 실제 인수 의지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전에 몇 차례 빅딜에서 후보로 나선 뒤 발을 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가 '비스포크(BESPOKE)' 디자인을 적용한 '김치플러스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를 3일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도입된 '김치플러스 비스포크' 3도어와 1도어에 이어 김장철을 앞두고 대용량 프리미엄 모델을 추가한 것이다. 삼성 비스포크가 기존 8개 타입에서 9개 타입 모델로 늘어남에 따라 소

비자 선택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플러스 비스포크는 4도어는 7가지 색상과 패널로 조합이 가능하며 출고가는 280만원~600만원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김치플러스 비스포크는 도어 패널을 소비자가 원하는 소재와 컬러로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취향과 주거 공간에 어울

리는 연출이 가능하다.

3도어와 1도어는 '키친핏'으로 주방 가구에 맞게 빌트인처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4도어는 '프리스탠딩' 타입으로 최대 584L의 여유로운 용량을 제공한다.

한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삼성 비스포크 가전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제품 타입과 도어 색상을 조합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